

맞춤형 사업 추진 국제교류 내실화 도모

군산시, 변화하는 국제정세 빠른 대응 도시별 상생 방안 모색

군산시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아시아 교류도시와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민감한 국제문제로 경색된 한중일의 관계에서도 지난해 군산-중국자매우호도시 교류회를 개최하고, 선양시, 옌타이시, 다카바쓰시의회 의원 등이 군산을 방문해 우의를 돈독히 하였으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축구 및 철인3종 경기대회에 중국과 일본이 참가했던 스포츠 교류 외에도 사진작가협회 등 민간단체의 교류도 끊이지 않아 친군산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산 중국사무소에서는 관내 기업 삼부지컴퍼니와 웨이하이의 산동신디중 유한회사를 지속적으로 바이어 매칭하여 (유)바다청의 뿌로로 김 251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우호협력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과 일본의 도시와 맞춤형 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행정기관보다 시민중심의 교류 영역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중국의 옌타이시와는 '국제자

매 우호도시 군산시 코너'에 군산시 도시를 비치하고, 선양시는 시장단회의 개최, 양자우시는 박물관소장품 교환전시, 베이하이시와는 한·중·일 섬 사진전 개최 등 도시에 맞는 교류협력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한중공문화원과 공연, 전시 협약을 연계한 사전협약 전문문화 공연 및 현대미술작품 전시, 새만금문화화랑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2월 1일 개관한 옌타이시 중한친선단지 홍보관과 군산 중국사무소 및 환관주 중국총영사관과

의 긴밀한 유대관례로 경제교류 협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본과는 한중일 섬 사진전, 어린이 그림전시회 상호개최 등 행정보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야의 교류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아시아의 교류가능 도시를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동남아까지 교류를 넓히는 등 동북아 중심에서 동남아까지 지역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광순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국제교류는 변화무쌍하여 업무추진에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군산시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통해 금년에는 더 많은 도시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교류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 발굴 앞장

군산시, 60개 법인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군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연말까지 6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법인 중 최근 4년 내 미조사 및 세무 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근거에 의해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적 및 시효소멸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4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 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사례조

사를 병행해 실시하며, 중점 조사분야는 ▲감면법인의 목적의 사용여부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 은닉여부 ▲기타 세목에 대한 적정 과세여부이다.

특히 시는 납세자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1일로 단축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법인의 소명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탈루·은닉 법인과 처벌을 불예정이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이번 법인세무조사는 조세 정의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실시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원칙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신고 과표 과소신고, 비과세·감면 및 기회세무조사를 통해 총 11억 원의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고군산 해양관광 활성화 총력

문동신 시장, 연결도로 개통 후속책 점검 위한 간부회의 가저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지난 9일 고군산연결도로 전면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 분야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문동신 시장은 간부공무원 및 사업부서장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주차장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 환경정비 등의 사업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특히 관광객 수용태세 등을 꼼꼼히 챙겼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적 해양관광자원인 고군산군도는 연결도로 개통이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그동안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대비 T/F팀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등 관광편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 시장은 "관광인프라 및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도로 전면개통 후 급증 추세인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군산시는 고군산 연결도로 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경우 주차도회차지점에서 회차를 유도하고 일정 교통량 이상 진입 시 군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신시도 시점부터 차량을 통제하는 차량통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비응항에서 장자도까지 24km 구간에 전북도내 최초로 관광형 2층 시애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들에게 이색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장광속 이리신협 상임이사 24대 이리신협 이사장 당선



장광속 이리신협 상임이사(59)가 제24대 이리신협 이사장에 당선되며, 장광속 현 이사장(59)과 김일훈(75) 현 이사가 후보등록을 마친 바 있다.

제24대 장광속 상임이사장은 "조합원의 화합의 다지며, 이리신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경주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광속 후보는 이리제일고(전 이리상고)·신협전문대를 졸업했으며 1979년 이리신협에 입사해 서기부터 시작해 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상무·전무·상임이사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2월 실시된 가운데 상임이사장에 장광속(59), 부이사장 이수남(57), 이사장 6명 최규욱, 전영일, 강성기, 정성

기, 이익수, 이종선 및 감사8명 최병기, 김성덕, 최광열 등이 당선됐다.

임기 4년의 임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접수가 진행됐으며, 이사장에는 장광속 현 이사장(59)과 김일훈(75) 현 이사가 후보등록을 마친 바 있다.

제24대 장광속 상임이사장은 "조합원의 화합의 다지며, 이리신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경주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광속 후보는 이리제일고(전 이리상고)·신협전문대를 졸업했으며 1979년 이리신협에 입사해 서기부터 시작해 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상무·전무·상임이사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2월 실시된 가운데 상임이사장에 장광속(59), 부이사장 이수남(57), 이사장 6명 최규욱, 전영일, 강성기, 정성



박정수 함지박 대표, 지방선거 익산시 제1선거 출마 선언

오랜 기간 동안 익산보안로타리클럽 회원으로 익산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던 박정수 함지박 대표가 시민들과 더 가까이 하고 호응하기위해 울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익산시 제1구(묘연·송화·오산·중앙·인화·평화·마동) 도의원에 나서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박 대표가 울해 지방선거 도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10여년 동안 민주당에서 주요활동을 하는 동안 지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권유, 익산에서 지역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함지박 레스토랑을 30여년 동안 운영하면서 남다른 친화력과 소탈한 성격, 탁월한 리더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심어주어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박정수 대표는 "30여년 동안 익산에서 가족 중심의 지역업을 경영하면서 시민들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울해 지방선거 도의원에 출마해 지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찍고 싶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이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살아온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새단장 이전

군산시는 12일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영화동(구)국립검역소 부지로 이전, 새롭게 단장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015년 4월 월명동 고우당 2층 건물 내에 개소해 월명동 일원의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총괄 지원과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돼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1층은 주민 사랑방 역할인 문화체험공간과 관광객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 2층은 군

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무실과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된다. 또한 지원센터는 송석기 군산대 교수를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하여 2명의 상근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주민 참여를 위해 '광역별 현장지원센터'를 공설시장 3층 여성교육장 내 사무실로 이전하여, 시 관계자,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울해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본격 추진

익산시는 지난 9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백제문화권역 첫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2018년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전국 10개의 테마여행 권역을 선정하여 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추진사업 중 하나이다.

익산시는 작년에 대전, 공주, 부여와 함께 '백제문화권역'이란 이름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익산시와 백제문화권역 지자체들은 2017년 사업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스마트 투어 가이드 기반 조성사업과 테마여행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추진했다.

스마트 투어 가이드 기반 조성사업은 오는 5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테마여행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수강생은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백제문화권역 광역해설사로 활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수도권 여행사와 연계한 백제문화권역 광역시티투어 운영사업, 백제문화권역 특화 여행상품 개발사업, 테마여행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차례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함께 공모에 선정된 대전·공주·부여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간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동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www.jmaeil.com